

日韓通訳翻訳学科

2015 年度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別レポート

課題③: お風呂

課題④: 住居

グループ1 1 ページ～

グループ2 13 ページ～

グループ3 25 ページ～

# 日本と韓国 お風呂文化



## 1 グループ

蘭 理沙・有光 桃・有瀬 里花

洪 性允・文 晶垠・金 秀珍・金 賢珠・禹 松希・金 鉉淑

# 『日本と韓国のお風呂文化について』

今回は日韓のお風呂と温泉文化についてチームで話してみました。

まずは、「**日本と韓国のお風呂**」の違いに対する意見です。

韓国ではトイレとお風呂が一緒になっている家が多いそうです。韓国にも日本と同じように家庭に湯船がありますが、家では湯船に浸かることはほとんどなく、布団などを洗うときの洗濯用に使われたりその湯船の中に入ってシャワーを浴びたりします。かといって、韓国にはお湯に浸かる文化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ゆっくりとお湯に浸かりたい時は銭湯やスパ、温泉、または「チムジルバン（韓国で近年、都市部を中心に急増している、50~90℃程度の低温サウナを主体とした健康ランドの一種。）」という施設を利用する人が多いです。特に銭湯は月極でも運営されるため、毎日のように行くのも可能です。また、ジムについている銭湯もありますので一気に利用の方がより便利だといえます。そしてチムジルバンではサウナだけでなく、漫画本を読んだり、パソコンでインターネットやゲームをするのも勿論できますので家族やカップルで行く人も多いです。

日本はシャワーとお風呂が一緒になっているマンションやアパートもありますが一般的には別々になっている家が多いです。

日本はシャワーをしてから湯船に浸かるというパターンが多い、体を浸かった後、そのお湯を捨てずに家族みんなで使う家もありました。そして寒い時期だけ入ってあとはシャワーだけで済ませる人もいれば、1年を通して湯船を使用する人も多いという意見もありました。

なぜこんなに頻繁に湯船に浸かるのかに関しては様々な考えがありましたが、たいてい“健康”“美容”“落ち着く”などのイメージを思い出しました。多くの人は落ち着くため、リラックスするため、に湯船に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の最も大きい理由として日本のあらゆる「お風呂グッズ」を考えられます。多様な色や香り、効果の“入浴剤”やお風呂の水面に浮かせる“キャンドル”など、そういうお風呂グッズの種類も豊富にあります。もちろん韓国にもアカスリ用手袋などがありますが、まだまだお風呂グッズの方はそこまで発達していません。

次は「日本と韓国の温泉」の違いについても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韓国では日本のような天然温泉が少ないという意見が出ました。ところが、韓国にも温泉の種類が豊富にあり、温泉やサウナも日本で言う健康ランドみたいな形で日本と同じくらい沢山あります。お湯に浸かってリラックスするというでもあります。チムジルバンという施設が主流で、この施設は岩盤浴にとても似ています。したがって、湯船に浸かる時間よりこうしたサウナやチムジルバンなどの使用時間のほうが長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して韓国のチムジルバンといえば、合わせて有名なのが「シッケ（甘酒に似たような甘い飲み物）」と「メッバンソクケラン（燻製卵）」です。

日本には火山が多いため、その火山による天然温泉もとても多く、有名な観光地もたくさんあります。全国各地の有名な天然温泉の中で、東京と近くて海外の観光客が大勢に尋ねる温泉が“硫黄温泉”と呼ばれる「箱根」の天然温泉で、この温泉と合わせて有名なのが「黒たまご」です。この黒たまごを1つ食べると7年長生きするという風に言われ、多くの観光客に愛されています。そして九州地方では、「湯布院」の露天風呂や「別府」の地獄めぐりなど、色んな天然温泉を集めた観光地で知られたところも多いです。そういうように、日本は温泉大国とも言われており、最近では日本も韓国と同じように温泉のほかにサウナや 岩盤浴も人気があるようです。

今回は日本人の学生の場合、夏休みを兼ねて釜山での短期研修があったため、韓国のスパを実際に体験できる機会がありました。そこは温泉、サウナ、チムジルバンがすべて揃っている施設でしたが、「日本と全然違うな～」とは実感出来ないほどけっこう似ていました。日本も韓国もお湯に浸かる人はたくさんいましたが、ただ、韓国はお湯に浸かる人より、やはりサウナやチムジルバンを利用する人が多かったかなと思いました。

## 1 グループ

蘭 理沙 (アララギ・リサ)、有光 桃 (アリミツ・モモ)、有瀬 里花 (アリセ・リカ)  
洪 性允 (ホン・ソンユン)、文 晶垠 (ムン・ジョンウン)、金 秀珍 (キム・スジン) 金 賢珠 (キム・ヒョンジュ)、禹 松希 (ウ・ソンヒ)、金 鉉淑 (キム・ヒョンスク)

# 『한국과 일본의 목욕문화에 대하여』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목욕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실과 욕실이 함께 있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욕조가 있습니다만, 집에서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입욕은 잘 하지 않는 편이고, 욕조에 이불을 넣고 밟아 빨거나, 그 욕조 속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는 입욕 문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롭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고 싶을 때에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혹은 온천이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목욕탕은 월정액 요금으로 끊어 다닐 수 있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헬스장에 딸려있는 목욕탕도 있으므로 겸사겸사 같이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는 사우나뿐만 아니라 만화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인터넷도 이용하고 게임도 할 수 있으므로 가족끼리, 혹은 커플이나 친구끼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놀이와 휴식을 겸비한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샤워시설과 욕조가 함께 붙어있는 맨션이나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일본은 샤워를 하고 나서 욕조에 몸을 담그는 패턴이 많으며, 몸을 담그고 나서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 등 추운 계절에만 입욕을 하고, 나머지는 샤워만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욕조를 몸을 담그는 사람도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입욕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건강", "미용", "진정효과"등의 이미지를 생각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릴렉스하기 위해, 피로를 풀기 위해 욕조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서 일본의 여러가지 "목욕 굿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향기, 그리고 각종 효과를 내세운 "입욕제"나 입욕시 욕조에 띄우는 "촛불"등, 이러한 목욕 상품의 종류도 정말 풍부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때밀이 장갑 등을 판매합니다만, 아직도 목욕 굿즈라 할 정도까지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온천>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천연 온천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온천의 종류가 제법 풍부하여 온천과 사우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본에서 말하는 건강 랜드 같은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쌓인 피로를 푸는 식의 온천도 있지만, 찜질방이라는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시설은 암반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 있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이러한 사우나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찜질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것이 식혜(일본의 감주와 비슷한 단 맛의 음료)와 맥반석계란(훈제계란)입니다.

일본에는 화산이 많기 때문에 화산에 의한 천연 온천도 매우 많고 그에 따른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한 천연 온천 중에서도 도쿄와 가깝고 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온천이 "유황 온천"이라고도 불리는 "하코네" 천연 온천이며, 이 온천과 함께 유명한 것이 "검은 달걀"입니다. 이 검은 달걀은 한 개를 먹으면 7년을 더 산다고 알려져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슈 지방에서는 유후인의 노천탕이라든지 벳부의 지옥 순례 등 다양한 천연 온천으로 이루어진 관광지로 알려진 곳도 많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온천 대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온천 외에 사우나와 암반욕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번에 몇몇 일본인 학생의 경우, 여름 방학을 겸해 부산에서의 단기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스파를 실제로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온천, 사우나, 찜질방이 모두 포함되어 시설 이었지만, "일본과 전혀 다르구나!" 라고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꽤나 비슷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입욕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다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역시 사우나와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 1 그룹

아라라기 리사, 아리미츠 모모, 아리세 리카  
홍 성윤, 문 정은, 김 현주, 김 수진, 우 송희, 김 현숙

# 日本と韓国に住居比較

## 한국과 일본의 주거

## 한국과 일본의 주거 비교



### 1 グループ

あららぎ りさ 蘭 理沙 (아라라기 리사) 、ありみつ もも 有光 桃 (아리미츠 모모)

ありせ りか 有瀬 里花 (아리세 리카) 、ホンソンユン 洪性允 (홍성운) 、

ムンジョンウン 文晶垠 (문정은) 、김현주 金賢珠 (김현주) 、김수진 金秀珍 (김수진) 우송희 禹松希

(우송희) 、김현숙 金鉉淑 (김현숙) 、나하나 ナハナ (나하나)



# 日本と韓国の住居に関する比較

## 1.契約システム(賃貸の場合)

※日本:契約時に1~2ヶ月分の敷金（保証金）、礼金を払います。

敷金（保証金）は家賃の滞納や部屋を引越する時に、修理が必要になった時など、この敷金（保証金）から差し引いて修理費用がまかなわれるので、返してもらえない場合もあります。

※韓国:「ウォルセ」と「チョンセ」と呼ばれる契約システムがあります。ウォルセとは日本の家賃のように毎月決められた額を払います。契約時に保証金を払いますが、この保証金の額が多いほど家賃が少なくなる特徴があります。保証金は契約期間終了時全額返してもらえます。

(ex.保証金1000万ウォン/家賃50万ウォン  
=保証金3000万ウォン/家賃30万ウォン)

チョンセとは契約時に大金の保証金を払うことで、月々家賃を払う必要がないというシステムです。

韓国はお金に余裕があるほど家賃の負担がないという事が分かりました。日本は韓国に比べると家賃が約2~3万円高いという意見があり、留学生にとって一ヶ月の支出のうち一番多く占めるのは家賃だというのが分かりました。

## 2.引越し祝い

※日本

引越し祝い：中古住宅を購入して引越した場合や賃貸から賃貸へ引越した場合、職場や近所でお世話になった方が、賃貸の借り換えで引越す際に贈る「餞別」のことをいいます。

新築祝い：新しく家を建てたり、新築のマンションを購入して引越した場合のお祝いです。

### ※韓国

韓国では引越しお祝いのことを「チプトゥリ」といいます。引越しをしたら、親戚や友達、知り合いなどを招待し、もてなしします。

## 3.引越し祝い&訪問マナー

### ※日本

訪問する時に持っていくものは特に決っていませんが、お菓子やケーキ、お酒などを持っていくことが多いです。持っていったものは部屋に入って挨拶を交わした後に渡します。引越し祝いで避けた方がいいものは、「火」を連想させるキャンドルやトースタ、ストーブなどです。他には、玄関で脱いだ靴を自分で下駄箱の方に揃えておきます。

### ※韓国

韓国は引越し祝い（チプトゥリ）をする時にトイレトーパーや洗剤などの生活用品をプレゼントするのが一般的ですが、最近は柱時計やキャンドルなどのインテリア雑貨をプレゼントすることも多いです。持っていったプレゼントは家に入ったら玄関で渡し、脱いだ靴は家の人が片付けます。

訪問マナーにも文化の違いがあると知らなかったという意見が多く、日本人の知人から招待された時には韓国のお土産やお菓子、お酒などを持って行ったという意見もありました。

# 일본과 한국의 주거비교

## 1. 계약시스템(임대의경우)

※일본 : 계약시1~2개월분의시키킨(보증금), 레이킹을 지불합니다.

시키킨(보증금)은 야칭의 체납이나 이사를 하였을시,수리가 필요할 경우 이 시키킨(보증금)에서 차감되어 수리를 하기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 '월세'와'전세'라고하는 계약시스템이있습니다.

월세란 일본의야칭과같이 매달 정해져있는 금액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시 보증금을 지불하지만,이 보증금의 금액이 많을수록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보증금1000만원 / 월세50만원  
= 보증금3000만원 / 월세30만원 )

전세란계약시 많은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매달 월세를 지불하지않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월세비용이 적어지거나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달마다 지불하는 금액이 평균20만원~30만원 정도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학생에게 있어서 한달 지출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이사축하행사

### ※일본

이사축하 : 중고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을 경우나 임대에서 임대로 이사했을 경우, 또는 그동안 신세를 진 사람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선물을 주거나 축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이사축하 : 새로운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거나, 신축맨션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축하하는 행사이다.

### ※한국

한국에서는 이사를 하고나면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 3.이사축하&방문매너

### ※일본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선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자나 케익, 술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간 선물은 방에 들어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나서 건네줍니다. 이사 축하시 하지말아야 할 선물은 '불'을 연상시키는 양초나 토스터, 스토브 등 입니다. 그

외에 지켜야 할 매너에는 집에 들어서 벗은 신발은 신발장 쪽으로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 등  
입니다.

### ※한국

한국은 집들이를 할 때 두루마리휴지나 세제등의 생활용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만, 최근에는 벽시계나 양초등의 인테리어 잡화등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져간 선물  
은 현관에서 건네주며 벗어놓은 신발은 집주인이 정리를 합니다.

방문매너에도 문화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본인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의기념품이나 과자, 술 등을 가지고 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5年

【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パクジェヒョン / パクジヘ / ソンヒョンジャ / ジャンユンヘ / ジョンミンジ / ナンコウカ  
朴宰賢 / 朴智恵 / 宋鉉姿 / 張允鏞 / 鄭玟智 / 南光華

ささめなつの / くぼたもえこ / ごとうはるか / さとうさやか / さかいあやの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 2015年 【日韓文化比較】 レポート

## 風呂文化

### 韓国の風呂文化

韓国はお風呂に入ることより、シャワーを浴びるというのが一般的です。

お風呂に入るといことは体をキレイにするためであり、韓国ならではの風呂文化に欠かせないのが垢すりです。垢すりというのは湯船の熱いお湯に浸り、体の角質をふやかしてその角質を取ることです。最近では垢すり文化が日本でも有名です。韓国でのお風呂は体が汚れた状態で湯船に入り、体の角質をふやかしてから石けんなどを使って垢すりをするのです。

つまり、韓国はざっと体を洗って湯船に入り体の角質をふやかしてから出て垢すりをして水あるいはシャワーなどで体をきれいにするのです。

### 日本の風呂文化

日本は火山が昔から多いので温泉がたくさんあり、日本ならではの風呂文化が発達したといえます。日本のお風呂は普通ならば一回お湯を溜めたら家族みんな使います。基本的には目上の人から入りますが、時代の変化により今は先に帰ってきた人からお風呂に入ります。

また、お客様がいらっしゃった時にはお湯を変えたり、お客様を優先としてお風呂に入るようにしています。お風呂に入る前は、必ず体をきれいにしてから湯船に入ることとなります。

日本のお風呂の文化と言うのは韓国と違って垢すりなどをしてまで体をきれいにするのではなく、その日にたまった体の疲れを取るためのことです。

つまり、日本はお風呂に入り、疲れをとってからのビール一杯に癒やされて寝床に入るとい  
うことです。

## 結論

‘汚れた体を洗いに行く’という韓国と ‘温かいお湯に体を浸す’という日本との考え方の違いがお風呂文化にも繋がったと思われます。人と人の間に情が深いという韓国の人々は銭湯に行き、手の届かない背中をほかの人に頼んでやってもらうことが出来る文化なのですが子供の時からほかの人には迷惑をか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教育を受けてきた日本の人々は銭湯でも周りを気をつけて行動します。このように文化の違いがそのままお風呂文化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いうことを今回のレポートを通じて分ることができました。



2015년

【한일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 / 박지혜 / 송현자 / 장윤혜 / 정민지 / 남광화  
朴宰賢 / 朴智惠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사사메나즈노 / 쿠보타모에코 / 코토하루카 / 사토사야카 / 사카이아야노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 2015 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 목욕문화

### 한국의 목욕문화

한국은 ‘목욕을 한다’라는 것 보다는 ‘샤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목욕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때밀이’ 입니다.

‘때밀이’라고 하는 것은 욕조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 몸에 있는 각질을 불려서 때를 미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때밀이’ 문화가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한국에서의 목욕은 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 각질을 불리고 난 후 비누칠을 한 뒤 ‘때밀이’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대충 몸을 씻고 난 뒤 목욕탕에 들어가 각질을 불리고 나와서 ‘때밀이’를 하고 물이나 샤워 등으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 일본의 목욕문화

일본은 화산이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온천이 많이 있어 일본만의 고유한 목욕 문화가 발달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목욕은 보통 한번 물을 받으면 가족 모두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웃어른부터 사용합니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오늘날에는 먼저 귀가한 사람부터 목욕을 합니다.

또한 집에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물을 갈거나 손님의 우선으로 목욕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의 목욕문화 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달리 ‘때밀이’ 등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일본은 목욕을 하면서 피곤을 풀고 난 뒤, 맥주 한잔으로 치유를 받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 결론

‘더러워진 몸을 씻으러 간다.’ 라는 한국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다.’ 라는 일본의 생각의 차이가 목욕 문화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정이 깊다라고 하는 한국사람들은 목욕탕에 가서 손이 닿지 않는 등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 가능한 문화입니다만,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폐를 끼쳐서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 온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조심조심 행동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문화의 차이가 그대로 목욕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015年

【日韓文化比較】レポート

2 グループ

パクジェヒョン / パクジヘ / ソンヒョンジャ / ジャンユンヘ / ジョンミンジ / ナンコウカ  
朴宰賢 / 朴智恵 / 宋鉉姿 / 張允鏞 / 鄭玟智 / 南光華

ささめなつの / くぼたもえこ / ごとうはるか / さとうさやか / さかいあやの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 2015年 【日韓文化比較】 レポート

## 引っ越し

韓国では“引っ越し祝い”という引っ越したお家に知り合いを招待して引っ越しをお祝い文化があります。引っ越し祝いに行く際にはお菓子や洗剤、生活用品などを持って行きますが、大体トイレットペーパーを持って行く場合が多いです。その理由はトイレットペーパーを巻くときの動作が運を引き起こすという説があります。

日本ではお菓子や洗剤などを引っ越し祝いプレゼントとして持って行きます。そして火を思い出させるようなものは絶対に持って行っては行けません。服装も火を思い出させる赤い色はなるべく控え、物ではなくお金を渡す場合もあります。ちなみに、韓国では火を思い出させるような物を持って行っても大丈夫だそうです。


このように引っ越しをした人に招待された時に、韓国も日本も招待してくれた人が新しい環境で上手く行けますようにという気持ちを込めて小さなプレゼントを持って行く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 住宅

韓国でアパートと呼ばれるのが日本の高層マンションの意味をし、日本でマンションと呼ばれるのが韓国のアパートの意味をします。お互いに反対の意味を持っているので時々会話の混乱を引き起こしたりします。

日本のマンションの壁は厚くなっていますが、アパートはそれより薄く造られているので防音性はちゃんと出来ていないという短所があり、アパートよりマンションの方が高級なイメージが強く韓国はこれらと正反対です。

日本の家は家具がない場合が多く、韓国と比べてみれば部屋が狭く家賃が高いで



す。そして日本は地震が多い国であるため、耐震対策がしっかりと出来ている半面、韓国は耐震対策をしないので小さな地震にも危ないです。

韓国では“チョンセ”という日本にはない制度があります。この“チョンセ金”というのは金額の高いお金を大家さんに預けたあと、毎月家賃を払わなくても良いという制度で、他のところに引っ越す際に“チョンセ金”の全額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現在は金利が低くなったのでチョンセ金がとても高くなっており、毎月支払う家賃を好む傾向が多くなっています。

周りの環境によって住宅の建築から生活まで多くのところが異っている韓国と日本ですが、人々がゆっくりと安らげて安定感のある家を造り、その家で暮らしていくために工夫をするところは同じだと言えます。

2015년

【한일문화비교】 보고서

2 그룹

박재현 / 박지혜 / 송현자 / 장윤희 / 정민지 / 남광화  
朴宰賢 / 朴智惠 / 宋鉉姿 / 張允鎧 / 鄭玟智 / 南光華

사사메나즈노 / 쿠보타모에코 / 코토하루카 / 사토사야카 / 사카이아야노  
笹目夏乃 / 久保田萌子 / 後藤春香 / 佐藤冴香 / 酒井綾乃

# 2015 년 [일한 문화 비교] 보고서

## 이사

한국에서는 “집들이” 라고 하는 이사 한 집에 지인을 초대해서 이사를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집들이에 갈 때에는 과자나 세제, 생활용품 등 가져갑니다만 대부분 화장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지를 마는 동작이 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자나 세제 등의 집들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불을 연상시키는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복장도 불을 연상시키는 빨간색은 되도록 입어서는 안되며 물건이 아닌 돈을 건네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불을 연상시키는 물건을 가지고 가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사를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을 때 한국도 일본도 초대해준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주택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은 일본의 고층 맨션을 뜻하며, 일본에서 맨션이라 불리는 것은 한국의 아파트를 뜻합니다.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대화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맨션의 벽은 두껍게 만들었으나 아파트는 그보다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아파트보다는 맨션이 고급 이미지가 강하며 한국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집에는 가구가 없는 곳이 많으며 한국과 비교하면 방이 좁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진공사가 잘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내진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지진에도 위험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세”라고 하는 일본에는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긴 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있으며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주택의 건축에서부터 생활까지 많은 점이 다른 한국과 일본이지만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 <3 조>

이정재, 이강천, 이승현, 이옥경, 임혜진, 오우케이

타카하시 미호, 히지카타 사야카, 사토우 미키

## <시작하며>

저희 3 그룹은 한국과 일본, 각국의 목욕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각 국의 목욕문화에 관련한 용어와 대중목욕탕의 차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 (1) 두 나라의 목욕문화에 대한 개요

### 1) 한국의 목욕문화

먼저 한국에서는 목욕과 샤워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목욕이란, 뜨거운 물에들여간 뒤 몸을 불려 때를 미는것을 목욕이라고 부른다는 점 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탕에 들어가기 보다, 샤워를 하는 문화가 주류인데, 이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 2) 일본의 목욕문화

일본은 각 가정마다 욕탕이 있을 정도로 목욕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는 욕탕을 오후로 라고 부르며, 입욕목욕과 샤워 즉, 몸을 씻는 행위자체를 오후로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본의 경우 탕에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푸는 형식의 목욕문화가 주류입니다.

### 3) 두 나라의 욕조 보급률

일본은 전통적으로 목욕문화가 발달한 나라로써, 한국에 비해서 입욕 가능한 욕조의 보급률이 높습니다. 각국의 입욕 가능한 욕조 보급률은 한국 70%, 일본 약 95%로써 일본이 보다 더 많은 욕조 보급률을 나타냈습니다.

*\*일본통계 - 통계국 2010년 자료, 한국통계 - 한국 주거학회 2013년 (단독주택 제외)*

## (2) 각국의 대중 목욕탕의 차이점

### 1) 대중목욕탕의 차이점 조사

	한국	일본
이름	대중목욕탕	센토 ( 銭湯 )
운영시간	24 시간인곳이 많다	17 시~0 시처럼 운영 시간이 정해진 곳이 많다.
욕탕에 들어가기전에 샤워를 하는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대체로 한다. (암묵적인 룰)
세면도구 비치 유무	대부분 비치 되어있다.	별로로 구매 필요
수면실의 유무	반드시 있다	없다
목욕탕 내 사우나의 유무	반드시 있다	없는곳이 많다
목욕탕의 벽화의 유무	없다	있다 (주로 후지산)
목욕이 끝나고 마시는 것	바나나 우유, 식혜	커피우유

\*한국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때밀이가 일본에서는 흔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때를 밀어주는 종업원이 성별에 맞춰 존재하는 반면, 일본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카운터와 반다이

각국의 대중목욕탕에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카운터(반다이)가 존재 합니다. 입욕전에 돈을 내고,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이 같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나, 한국의 대중목욕탕은 남탕과 여탕의 카운터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반다이는 하나로써, 두개의 탕을 한번에 관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반다이에 누가 앉아있던 성별에 관계없이 그 아무도 개의치 않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목욕탕도 각각의 성별에 맞춰 종업원이 업무를 보는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한국인 학생 전원(5명)은 반다이에 자신과 다른 성별의 관리자가 있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사 표본 : 일본인 여성 19 세 여성 3 인, 한국인 남성 20 대 1 인 한국인 여성 20 대 4 인)

이상입니다

#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 3 組 >

イジョンジェ、イカンチョン、イスンヨク、イオクギョン、イムヘジン、イミギ  
李政宰、李康天、李乘然、李玉京、林惠眞、王經  
タカハシミホ、ヒジカタサヤカ、サトウミキ  
高橋美穂、土方沙耶香、佐藤実希

## <はじめに>

3グループは日本と韓国、各国のお風呂文化について話しました。

また、各国のお風呂文化に関する用語や銭湯文化の差を比較しました。

## (1) 両国のお風呂文化の概要

### 1) 日本のお風呂文化

日本では各家庭にお風呂があるほどお風呂文化が発達した国です。

浴室というのを日本では普通にお風呂と言ひ、入浴とシャワー、つまり体を洗う行為自体をお風呂に入ると言ひます。

日本では浴槽に入り、一日の疲れをとるかたちのお風呂文化が主流です。

### 2) 韓国のお風呂文化

韓国では沐浴とシャワーとに対するそれぞれのイメージがあります。

沐浴というのはお湯にはいり、しばらくした後、あかすりをするを沐浴と言ひます。

特に韓国では入浴より、シャワーをする文化が主流であり、これは沐浴というのは単純に体を清潔する一つの手段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からと思われます。

### 3) 両国の浴槽の普及率

日本は伝統的にお風呂文化が発達した国であり、韓国に比べてお風呂（浴槽）の普及率が高いです。各国のお風呂の普及率は、日本95%、韓国70%で、日本のほうが普及率が高いことがわかりました。

\*参考資料：日本（通計局2010年資料） 韓国（韓国住居学会2013：一軒家を除く）

## (2) 銭湯の比較

### 1) 両国の銭湯の差

	日本	韓国
名前	銭湯	大衆沐浴湯
営業時間	17時～00時までするところが多い	24時間のところが多い
お風呂に入る前にシャワーを するかどうか	だいたいする (暗黙的なルール)	する時もあるが、しない時もある
睡眠室の有無	特別なところでないとない	ある
サウナの有無	特別なところでないとない	ある
壁の絵の有無	ある(主に富士山)	ないところが多い
石鹸やシャンプーなどが無料 でもらえるかどうか	買わないといけない	無料でもらえる
お風呂あがりに飲む飲み物	コーヒー牛乳	バナナ牛乳、シッケ



\*日本では見かけにくいあかすりが韓国では銭湯に欠かせないものだと分かりました。また韓国ではあかすりをしてくれる従業員など、男性は男湯、女性は女湯で働くことがわかりました。

## 2) 番台とカウンター

各国の銭湯には銭湯を管理する番台(カウンター)があります。入浴の前にお金を払ったり、他にシャンプーや歯ブラシなど、必要な物品が買えるという共通点がありますが、日本の番台は一つで二つの湯を管理するのに対し、韓国のカウンターは男湯と女湯に一つずつあり、湯の性別に合わせた係が管理します。

(現在、日本の銭湯の番台も男湯は男性が、女湯は女性が管理す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また、グループ内の学生全員(8人)は番台に自分と違う性別の人がいることに抵抗感をあらわしました。(日本人女性 19歳 3人、韓国人男性 20代 1人、韓国人女性 20代4人)

以上です。

# 한일 문화 비교 그룹 레포트

## <3 조>

이정재, 이강천, 이승현, 이옥경, 김현아, 임혜진, 오우케이

타카하시 미호, 히지카타 사야카, 나카무라 미이나, 사토우 미키

## <시작하며>

저희 3 그룹은 한국과 일본의 주거문화에 대해서 비교하였으며, 각국의 주거지의 비율과, 욕실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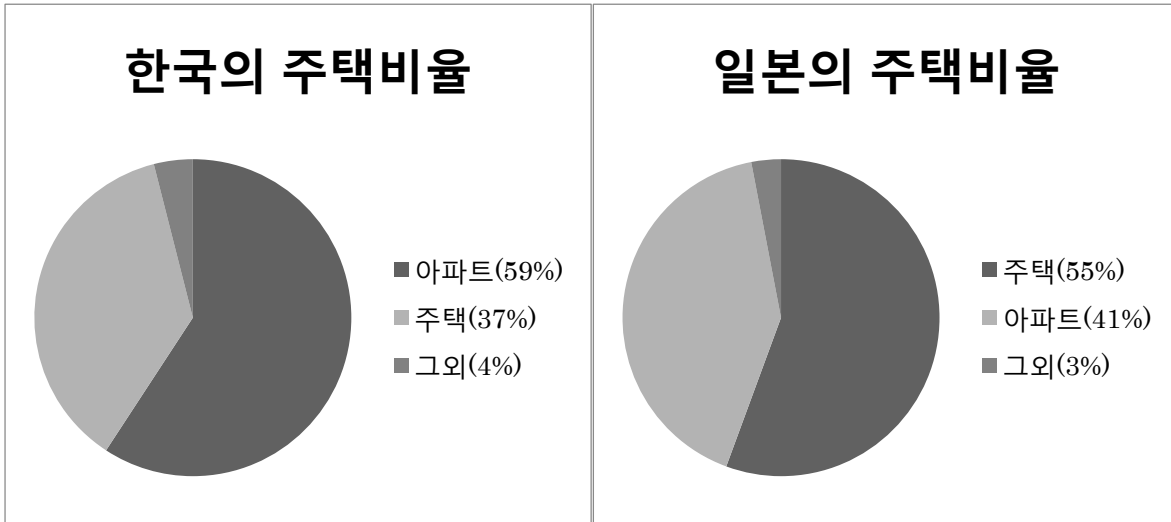
### 1) 주거지의 용어 비교

한국	일본
아파트 ( 아파트 )	맨션 (マンション)
단독주택 ( 单独住宅 )	독채집(一軒家)
연립 주택 ( 連立住宅 )	아파트 ( 아파트 )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한국의 경우, 한 층에 2 가구의 주택이 많은 반면, 일본은 복도식으로 한 층에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주거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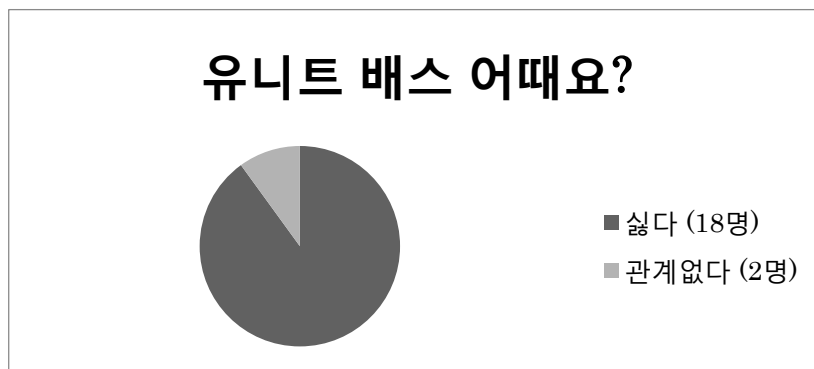
대체로 한국 에서는 아파트, 일본 에서는 독채집의 선호도가 높으며, 각국의 아파트와 독채집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통계청의 2000 년도 자료이며, 일본의 경우 2014 년전국 데이터 사이트에서 참조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엔 다세대주택이 포함됐으며, 일본의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이 포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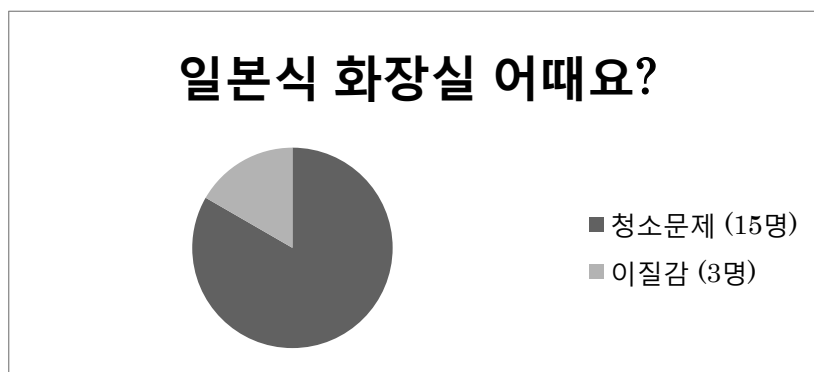
### 3) 욕실&화장실

한국의 경우 변기와 욕조가 함께 있는 유니트 배스가 보통이며, 일본의 경우는 변기와 욕실이 따로 떨어져있는 화장실(혹은 욕실)이 보통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특히 유니트 배스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조사 표본은 관동 지방의 20-30 대의 일본 남녀 20 명 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유니트 배스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해 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조사 결과, 20 인 모두 유니트 배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본의 옥조와 화장실이 각각 떨어져 있는 문화를 설명했는데, 재미있게도 18 명의 응답자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사 표본은 서울 거주 20-30 대 남녀 18 명 입니다.*

한국인들이 욕실과 화장실이 따로있는 화장실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유로 청소문제가 언급되었는데(15 명), 이는 번기를 물청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 日韓文化比較 グループレポート

## < 3 グループ >

イジョンジエ イカンチョン イスジョン イオクキョン キムヒョンア イムヘジン オフクイ  
李政宰, 李康天, 李乘然, 李玉京, 金鉉亞, 林惠眞, 王經  
タカハシミホ ヒジカタサヤカ ナカムラミイナ サトウミキ  
高橋美穂、土方沙耶香、中村実衣奈、佐藤実希

## <はじめに>

3グループは日本と韓国の住居文化を比較し、各国の住居の比率や、浴室(トイレとお風呂)に対するイメージ調査を実施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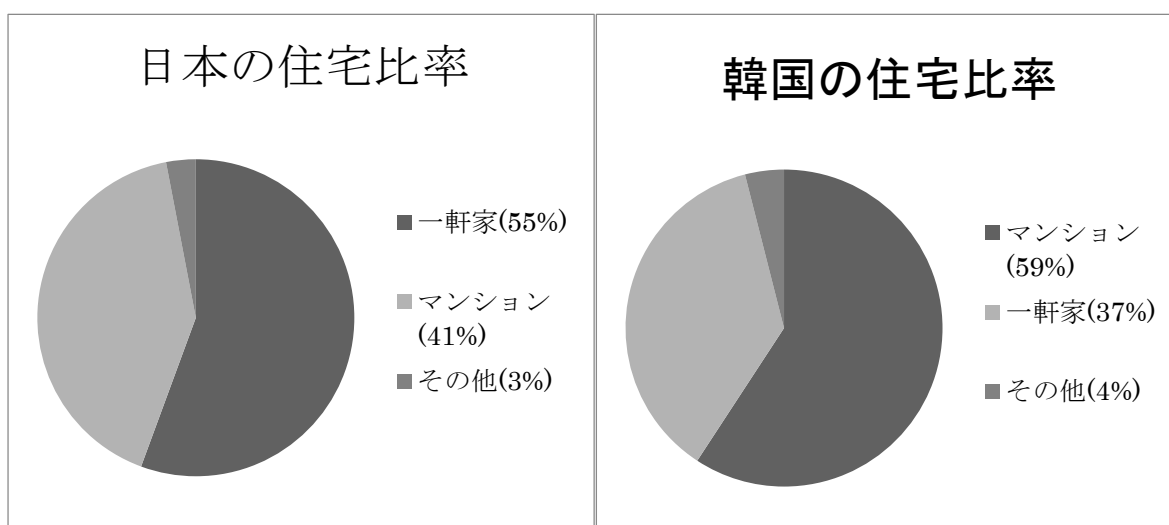
### 1) 用語比較

日本	韓国
一軒家(독채집)	単独住宅(단독주택)
マンション(맨션)	アパート(아파트)
アパート(아파트)	連立住宅(연립주택)

\*多世帯住宅の場合、日本は廊下式のマンションや、アパートが多く、一階にたくさんの世帯が住むところが多いですが、韓国は一階に2つの世帯が住むところが多いです。

### 2) 住宅の比率

日本では一軒家、韓国ではマンションを好む比率が高く、各国の一軒家とマンションの比率は次のよう  
です。



\*日本は2014年の都道府県データを参考し、韓国は韓国統計庁の2000年度の資料です。

日本のマンションには共同住宅が含まれていて、韓国のマンションではアパートも含まれ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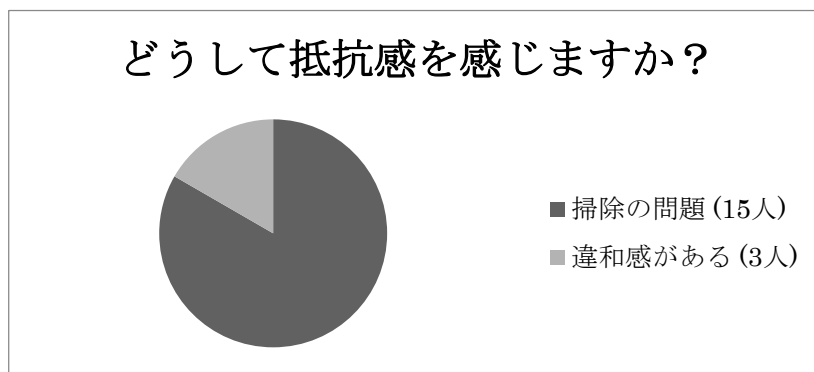
### 3) お風呂 & トイレ

韓国の場合、ユニットバスが普通であり、日本ではトイレとお風呂が別れているのが普通です。特に日本人の場合、ユニットバスに抵抗感を感じる人が多かったです。



\*調査した人は関東在住の20 - 30代の日本人の男女20人です。

しかし、韓国人の場合、ユニットバスという言葉さえ知らないと答えた人も多く、調査の結果、20人の韓国人はすべてユニットバスに抵抗感がないと答えました。逆に彼らに日本の別々式のトイレ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が、面白いことに、20人の18人は抵抗感を表わしました。



\*調査した人はソウル在住の20 - 30代の韓国人の男女18人です。

韓国人がトイレとお風呂が別れているトイレに抵抗感を感じた理由の中で、一番多く指摘された、掃除の問題は、トイレ全体を水で流して掃除できないことが理由として指摘されました。